

5.31 지방선거 전후 여성권한척도(GEM)의 변화비교:

— 서울시, 경북, 충북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f GEM Before and After the 5.31 Local Election: Seoul, Kyungbuk, and Chungbuk.

고 속 희*
Ko, Sook-Hee

< 목 차 >

- I. 서 론
- II. 여성권한척도의 개념과 지표
- III. 분석 및 결과 해석
- IV. 정책적 함의
- V. 맺는말

우리나라는 인간개발지수는 국제적으로 그리 낮은 수준이 아니지만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지표로 나타나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여성권한척도로 대표될 수 있는데, UNDP에서 산출하는 이 지표상에 나타난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60위권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그렇다면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도 10년을 넘긴 현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여성권한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이 논문의 출발점이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선거를 전후한 여성권한척도를 비교하였다. 이 논문에서 지방선거가 주요 이슈인 이유는 여성 지방의회 의원수가 여성권한척도의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 지방선거전에 비해 선거후에 조사대상인 서울시, 경북, 충북 모두 여성권한척도가 많이 상승하였다. 지방선거전에는 여성권한척도 하락의 주된 요인이 여성의원수였는데 비해, 선거후에는 여성의 경제활동지

논문 접수일: 2006년 11월 10일

* 세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표가 주요 하락요인이 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처방적으로 여성권한척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적 지위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주제어: 여성권한척도, 여성권한, 여성지위

Korea is known for its remarkable economic development during the last 30 years. So the Human Development Index is not low compared with other OECD country, but the woman's social status is low relatively. Woman's social status represented by Gender Empowerment Measure(GEM) measured by UNDP ranked 60 degree in targeted country. In this paper, based on the above fact, it measured and compared GEM by the local autonomous entities before and after the 5.31 local election. The local entity of study was Seoul, Kyungbuk, and Chungbuk. The result of study, the number of woman member of Parliament was the cause low GEM before local election. But Woman's economic position was the critical factor in low GEM after local election. So Woman's economic position must be increased to enhance GEM in the all three local entities.

□ Keyword: Gender Empowerment Measure. Woman's social status.

I. 서론

지난 5.31지방선거때 각 정당들이 일정지역에 여성을 비례대표 우선순위에 배정한 바 있다. 그 결과 그 동안 지방정치분야에서 절대적으로 취약했던 여성대표성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히 상승하였다. 경제규모 세계 11위에,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60%를 넘는 이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가 상당히 증가하였지만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 고위직에의 여성참여는 여전히 미진한 실정이다.

사회 각 분야 고위직에서의 남녀평등정도를 평가하는 데 기초가 되는 것이 GEM(Gender Empowerment Measure)¹⁾이다. 이 지표는 UN이 1995년도부터 발표하기 시작하였고 남

1) 여성권한척도(GEM: Gender Empowerment Measure)는 1996년에 UNDP에서 발간한 [인간 개발보고서 1995]에 처음 등장한 개념이다. Gender Empowerment Measure를 '여성권한척도'라고 번역했지만 실제로 이 자료가 사용되는 용도를 기준으로 보면 '성별권한지표'의 의미가 강

성과 비교해서 주요 사회영역, 특히 정치·경제분야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이 얼마나 동등하게 참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전체 여성의 힘을 대표하는 척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에 처음 여성권한척도가 발표된 이래로 조금씩 상승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²⁾ 이러한 결과는 경제성장이 자동적으로 여성권한의 향상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의 권한은 단순히 경제발전의 결과가 아니라 특정사회의 전통, 문화, 가치관 등 다양한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결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과 남성, 즉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구성의 기반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것들의 변화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때문에 여성권한향상에 관심을 가진 국가들은 대체로 평등을 목표로 하는 의도적인 국가적 정책 및 제도변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 동안 우리 정부도 여성권한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여성고용목표제와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30% 등 각종 여성배당비율제도(quota system)를 실시하였고 사 부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제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작년도 여성권한척도의 순위가 말해주는 것처럼 그 결과는 만족스럽지가 않다.

이러한 낮은 여성권한척도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수준은 더 심각하다.³⁾ 중앙정부의 경우 정책결정자의 정책의지의 침투가 비교적 용의한 데 비해 지방정부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이 논문에서는 지난 5.31지방선거 전후의 여성권한척도를 산출하여 지방의회의원 증가가 여성권한척도 상승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비교해 보고, 여성권한척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를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여기서 여성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 GEM)를 산출한 방법은 유엔개발기구(UNDP)가 측정한 것과 동일한 변수와 방법을 이용해서 서울시, 경북, 충북의 것을 산출하였다.⁴⁾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각 자치단체에 의뢰하여 수집한 것과 통계청, 여성부 등에서

하다. 따라서 엄밀히 말해서 GEM은 성과 관련된 권한척도이기 때문에 여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세계적으로 모든 면에서 여성의 권한이 남성에 비해 뒤떨어지기 때문에 여성의 권한 정도를 의미하는 개념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도 여성권한척도라는 용어로 사용하기로 한다.

- 2) 우리나라의 여성권한척도는 1995년도에 90위, 1999년도에 78위, 2003년도에 63위, 그리고 2004년도에는 68위였다.
- 3) 2000년도에 고숙희(2000: 295-316)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충청북도의 GEM은 0.2383이었는데, 이 수치는 같은 해 우리나라 전체 GEM 수치 0.336보다 월등히 낮다.
- 4) 서울시, 경북, 충북을 선택한 이유는, 서울시의 경우는 중앙정부와의 근접성으로 인해 중앙정부

생산된 기초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II. 여성권한척도의 개념과 지표

1. 여성권한척도의 개념

기본적으로 권한(Empowerment)⁵⁾을 형성한다는 것은 능력(capability)의 확대에 달려 있다(UN, 1996). 능력이 확대된다는 것은 선택기회의 확대를 의미하며 선택기회의 확대는 자유의 증대를 수반한다. 예컨대, 누구나 시장에서 식품을 구입할 수 있지만 너무 가난하여 구입할 능력이 없다면 그 자유는 아무 의미가 없다. 누구나 신문을 읽을 자유가 있지만 이 자유는 문자해독능력에 달려 있다. 이러한 권한은 또한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참여·승인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이 권한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 개념이다(Marilee Karl, 1995: 14). 권한형성의 과정은 개인적일 수도 있고 집단적일 수도 있는데, 여성의 권한형성은 상호 강화적 영향을 미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들의 연속된 과정이다(Marilee Karl, 1995)

첫째는 성의 평등을 향한 첫단계로서 여성의 위치, 차별, 권리, 기회 등에 관한 의식형성이고, 둘째는 능력향상 및 기술개발이다. 특히 사람과 제도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획, 의사결정, 관리, 활동수행 능력면의 향상 및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는 가정, 공동체, 사회에의 참여와 통제력 및 의사결정권한의 확대이고, 넷째는 성간의 평등확대를 위한 행동이다. 즉 권한형성이라는 것은 의식화와 더 많은 참여, 더 많은 의사결정권한 및 통제력을 얻기 위한 일련의 과정인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처럼 여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권한을 측정하고 그것을 수치화(지표화)하여 발표한 것은 UN 산하기관인 유엔개발계획(UNDP)의 '1995년도 인간개발보고서'(UNDP, 1996)가 처음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여성의 지위와 관련된 두 가지의 중요한 측정을 하였는데, 성별평등지수(GDI:

의 여성정책 파급효과가 다른 지역보다 빠를 것으로 보고 그 여부를 판단하기 한 것이고, 경북과 충북의 경우는 경제사정이 비교적 좋은 도와 좋지 않은 도를 대표한 선택이다.

⁵⁾ empowerment라는 단어는 power를 갖게 한다는 과정적 의미가 함의되어 있다. 그리고 power 자체도 권한, 권력 등이 상호교체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empowerment를 번역하는 것이 쉽지 않다. 여기서는 권한이라는 용어로 사용하지만 의미로 보아 권력과 상호교체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와 여성권한척도(GEM: Gender Empowerment Measure)가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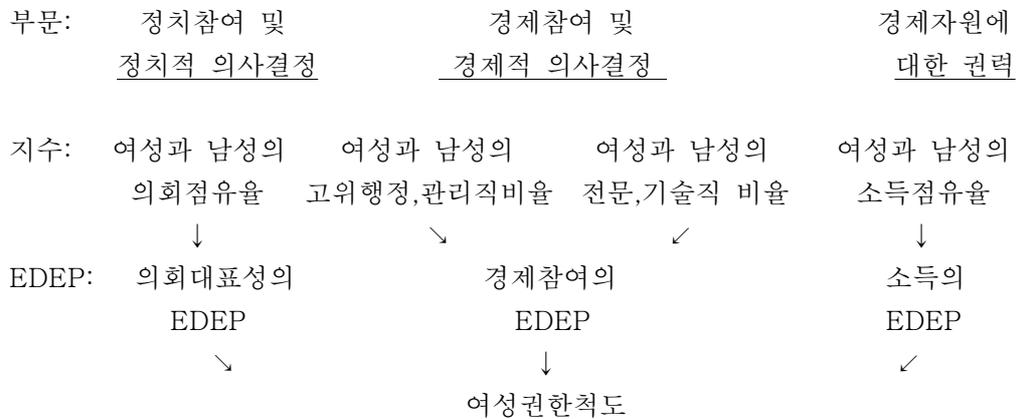
성별평등지수란 평균수명, 교육수준(문자해독률, 초등-고등교육 등록비율), 소득수준 등의 남녀간 차이를 산출한 지수이다(UNDP, 1995). 이에 비해 여성권한척도란 남성과 비교해서 여성이 정치, 경제, 행정 영역에서 얼마만큼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성별평등지수가 여성능력의 확장에 초점을 두는데 비해 여성권한척도는 생활상의 유리한 기회를 얻기 위해 그러한 능력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www://undp.org: 2006. 5. 3). 따라서 여성권한을 측정하는 방법은 여성의 경제, 정치, 전문적 활동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연관된다.

2. 여성권한척도의 지표구성

유엔개발계획 보고서에 게재되는 여성권한척도는 정치참여 및 정치적 의사결정, 경제참여 및 경제적 의사결정, 경제자원에 대한 힘 등 3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http://hdr.undp: 2006. 8. 5) 그 관계를 표로 표시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여성권한척도의 구성지수



자료: hdr.undp.org(2006. 8. 5)

주: EDEP: Equally Distributed Equivalent Percentage

1) 정치참여 및 정치적 의사결정

여성권한척도 산출을 위한 정치참여 및 정치적 의사결정은 의회의 여성점유율로 지수화된 다. 의회의 여성점유율은 정치적 기회에의 접근성과 정치적 의사결정에의 참여가능성, 그리고 권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의회의 여성점유가 의미를 갖는 이유는 여성이 제역할을 해준다면 정치과정에서 새로운 시각과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우선순위를 적용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Marilee Karl, 1995).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되면 정부부문이 그 동안 정치사회에서 간과 되었던 여성에게 반응적이 됨으로서 결과적으로 사회내 모든 사람들의 요구에 좀 더 민감해질 수 있게 된다.

물론 정치에서 여성만이 여성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은 아니고, 또 경우에 따라 여성 의원이 여성적 관점보다는 정당의 결정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여성의원이 여성이익에 더 반응적인 것은 사실이다(Karin L. Tamerius, 1995).

1995년에 유엔이 정해 놓은 여성의 의식확보 권고치는 30%선인데, 2004년 기준으로 이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는 나라는 스웨덴(45.34%)과 노르웨이(36.4%) 두 나라 뿐이다.⁶⁾ 이 때문에 유엔여성발전분과(United Nations 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DAW)에서는 여성의 의회진출 및 관리직진출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첫째, 상대적으로 짧은 여성 정치참여의 역사적 전통과 캠페인, 공개토론, 대중매체 등에 대한 경험부족

둘째,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팽배, 여성을 포함한 선거권자들의 여성후보자 및 정치인에 대한 신뢰·지원 부족

셋째, 가정과 사회에서의 전통적인 여성역할과 정치경력을 조합하는 경험미숙

넷째, 경제적 의존성과 재정 수단의 부족

다섯째, 일반적인 교육 및 특히 정치적 교육의 불충분

여섯째, 여성자신의 정치, 특히 고위직에서 참여를 꺼리거나 자신감 없음 등을 지적하면서 (Marilee Karl, 1995: 64) 해결책을 촉구하고 있다.

2) 경제참여 및 경제적 의사결정

경제참여 및 경제적 의사결정은 전문직·기술직 및 고위 행정·관리직의 성별 점유율로

6) 우리나라는 2002년 총선결과 전체의원 299명 중 39명이 여성이 당선되어 현재 13%수준이며, 아시아에서 GEM이 가장 높은 일본도 9.9%선이다.

지수화 된다. 행정직과 관리직은 경제적 의사결정기회에의 접근성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고, 전문직과 기술직은 경력개발에 필요한 기회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1) 고위 행정·관리직의 성별 점유율

조직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일차적인 근거는 직위이다. 합법적인 권한행사가 직위에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윤우곤, 1997: 303) 조직구성원들은 그 권력을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박연호, 1998: 344). 따라서 조직 계층구조에서 높은 직위일수록 권한이 크다. 조직에서 고위직일수록 강제, 보상, 규범, 전문지식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더 많이 부여되기 때문에 권력형성에 중요한 원천이 된다. 또한 권한은 리더십의 핵심이고(Georgia Duerst-Lahti & Rita Mae Kelly, 1995: 30) 이 리더십은 정책 및 의사결정권과 연관된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공공부문에서든 사부문에서든 낮은 계층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권력과 정책 및 의사결정직에서의 대표성이 매우 낮다. 1995년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국가지도자, 주요기업의 최고관리자, 국제조직의 최고위층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 미만이었다(Marilee Karl, 1995). 그 이후 여성점유율이 계속 상승하여 2004년 기준으로 OECD국가들의 여성각료비율이 25.7%에 달하고 있다(한국일보, 2005. 8. 11).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여성 국회의원 및 고위임원을 합친 비율이 5%, 행정 및 경영관리자 비율이 6%, 일반관리자 비율이 7%로서(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한숙, 2004에서 인용) OECD국가들에 비해 고위행정, 관리직의 여성비율이 월등히 낮다.

여성이 고위행정직으로 진출하지 못하는 요인들은 개인적·조직적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Mani, Bonnie G., 1999: 524). 여성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장애는 자녀교육, 가족, 동기, 가정에 대한 의무 등 성역할과 관련된 것이다. 여성에 대한 차별적 태도와 관습,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수준, 일과 가사·육아병행의 어려움 등이 그에 속한다.

조직적 차원에서의 장애요인은 행정부서에 여성이 점하고 있는 자리는 승진이 불리한 보직이라는 것과 관련된다. 남성들은 주로 지도적 역할을 하는 자리에 있는 반면 여성은 지원적·위임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계선에서 권한을 가지거나 관리직으로 승진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실무경험기회가 제한된다(Mary E. Guy: 1994: 82). 즉 사회복지업무, 간호업무, 초중등교육 등의 분야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고 선발, 승진, 고충제도, 훈련, 경력발전기회, 직무분류 등 모든 제도들이 여성들로 하여금 발전전망이 적은 '여성'직무범주에 속하는 일을 하도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일단 한 번 여성과 연관된 직무라는 것이 알려지면 그 직무는 권위를 상실하는 오염효과(contamination effect)까지 발생하고 있다(Mary E.

Guy: 1994: 84).

또 다른 한편으로 공공관료조직에서 여성은 능력면에서 의심을 받고 있고(Katherine C. Naff, 1994),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성처럼 행동할 것이 기대되고 있다(Cheryl Simrell King, 1995: 87; Mary E. Guy: 1994: 80).

기업의 경우도 정상에 도달하는데 있어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실수가 더 치명적으로 작용한다(The CPA Journal, 1998: 9). 경영학을 전공한 젊은 여성들은 교육과정동안 비교적 평등한 관계에 익숙해 있다가 기업체에서 승진해 가는 과정에서 겪게 될 위험에 준비가 안돼 고전을 금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전체적으로 여성의 경제참여는 계속 증가되어 왔지만 고용기회, 권리, 보수 등의 면에서 여전히 불평등은 남아 있다. 또한 여성관리자들의 수도 적고 노조간부도 드물기 때문에 여성의 모성보호나 직업의 안정성, 육아 등의 열악한 상황의 개선이 더 어렵다(Marilee Karl, 1995).

(2) 전문·기술직

전문·기술직의 권한은 다른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하는 전문·기술에 관한 정보 보유정도에 의해 평가된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 때 그 지식이나 기술에 관한 정보가 중요할수록, 그리고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대안이 적을수록 전문적 권한은 강화된다(이창원, 최창현, 1997: 288).

전문·기술직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가진 전문성과 기술의 비대체성 때문이다(박우순, 1996: 373). 개인이나 집단이 가진 전문지식과 기술을 다른 사람이나 집단으로 대체할 수 없으면 그 만큼 더 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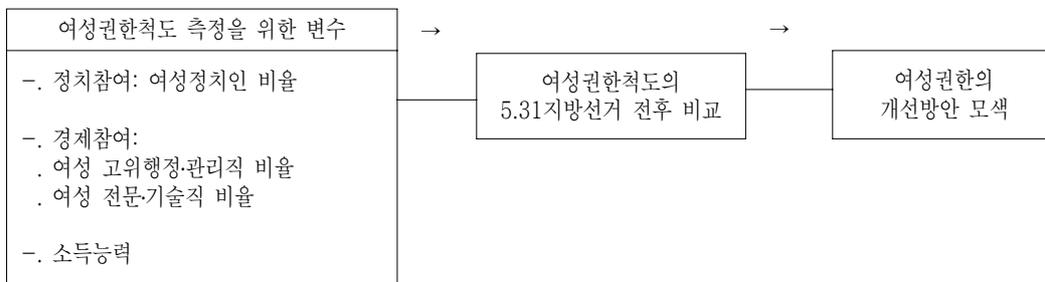
(3) 소득능력

여기서의 소득능력이란 남성 1인당 소득에 대한 여성 1인당 소득의 비율을 의미한다(www.undp.org: 2006. 8. 5). 즉 남성소득을 1로 보았을 때 여성소득이 몇 %에 해당하는가의 문제이다. 성별평등지수에서도 소득을 측정하긴 하지만 소득이 기본적인 인간개발 - 수명, 문자해독률, 빈곤탈피 - 에 기여하기 때문에서 측정하는데 비해, 성별권한측도에서는 소득자가 좀 더 광범위한 가능성 및 대안들을 선택·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 권력의 원천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UNDP, 1995: 82).

3. 분석의 틀

이 논문의 목적은 5.31지방선거를 전후한 여성권한척도를 측정하여 비교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 여기서는 UNDP에서 기준으로 선정한 변수와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여성의 권한을 측정하기로 한다. UNDP는 남성 대비 여성정치인 비율과 남성대비 여성 고위 행정·관리직 비율, 남성대비 여성 전문·기술직 비율, 여성과 남성의 임금점유율 등의 변수가 사용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지수화하는 데에는 남여경제활동인구비율, 남성대비 여성임금비율(비농업), 1인당 GDP 등의 자료 등이 활용된다. 이 연구의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표시하면 다음 <그림 1>과 같은 분석틀 형태가 된다.

<그림 1> 연구를 위한 분석틀



이 4개의 변수들을 이용하여 제1단계에서는 여성의 정치대표지수와 여성 행정·관리직 점유지수 및 여성 전문·기술직 점유지수를 측정하고, 제2단계에서는 성별 소득분배지수를 계산한다. 그리고 제3단계에서는 이 3개 지수의 평균치를 산출하여 여성권한척도를 산출한다.

Ⅲ. 분석 및 결과해석

1. 여성정치인 비율

여성권한척도의 주요 변수 중 하나가 여성정치참여비율이다. 이 때의 정치참여정도는 의회 의원 수를 의미하고, 의회의원 수는 전체의원 중 여성과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로 나타난다. 서울시와 경북, 충북의 지난 5.31 지방선거 전후의 여성 및 남성의회의원비율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의회의원들의 여남비율

(단위: %)

	지방선거전		지방선거후	
	여	남	여	남
서울시	6.0	94.0	18.1	81.9
경북	2.0	98.0	12.1	87.9
충북	2.8	97.2	12.3	87.7

비율면에서 서울시가 경북이나 충북에 비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의원수가 높다는 것은 여성정치참여의 동등지수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권한척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난 5.31지방선거 후에 많은 여성의원들이 지방정치권으로 진입하여 여성의원들의 비율이 선거전에 비해 상당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전문·기술직, 고위 행정·관리직 여성비율

1) 전문·기술직 여성비율

여기서의 전문·기술직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대분류)에서의 '전문가'와 '기술공 및 준전문가'를 포함시켰다.

각 시도별 전문기술직 구성비는 다음 <표 3>과 같다. 이 중 충북은 자체적으로 여성통계를 산출하고 있었고, 서울시와 경북의 경우는 여성통계를 따로 생산하지 않아 전국통계를 사용하였다.

<표 3> 전문, 기술직의 여남구성비율

(단위: %)

	여	남
서울시	38	62
경북	38	62
충북	44.6	55.4

* 2004년 기준

전문기술직의 경우는 충북의 비율이 높고 서울시와 경북이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충북의 전문기술직 수치는 선진국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 아니다. 예컨대 2004년도 GEM 1위인 노르웨이의 경우 여성전문기술직 비율이 49%이고 2위인 스웨덴의 경우 50%선이다

(<http://hdr.undp.org>). 2006년 3월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에서 여성전문인력이 200만명을 상회하고 있어(세계일보, 2006, 3.22) 이 분야의 발전은 매우 빠른 편이다.

2) 고위 행정·관리직 여성비율

고위행정관리직의 비율은 공무원의 경우는 3급이상 비율을 의미하고 관리자의 경우는 기업체의 임원급이상이 기준이다. 이 수치도 충북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통계를 생산하였고, 서울과 경북의 경우는 3급이상 비율은 각 시도에서 제시한 자료를 그리고 고위관리직 비율은 우리나라 전체 민간기업 임원급 여성비율 3.5%를 적용하였다.

<표 4> 행정·관리직의 여남비율

(단위: %)

	여	남
서울시	6.4	93.6
경북	8.7	91.3
충북	3.5	96.5

* 충북의 경우는 통계상 3급이상 여성공무원과 고위임원직이 없다는 자료를 얻었으나, 0%로는 수식이 성립하지 않아 우리나라 민간기업 여성임원직 비율 3.5%를 적용하였다.

행정관리직의 여성비율은 조사대상 3개 시도 중 경북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서울, 충북순이다. 유엔이 발간한 1999년도 인간개발보고서에 의하면 이 수치가 가장 높은 미국의 경우는 44.3%에 이른다(UN, 2000: 중앙일보, 2000. 1. 13에서 인용). 2004년 기준으로 GEM 1, 2위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경우 행정관리직의 비율이 각각 28%, 31%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로 보았을 때 2004년말 현재 전체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 비율은 34%이고 3급이상은 2.5% 수준이다.

3. 여성의 소득현황

2004년도 기준으로 서울시, 경북, 충북의 남성대비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각각 42.2%, 44.2%, 39.8%이다.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평균임금은 충북의 경우 자체적으로 산출한 수치가 여성 1,043,000 대 남성 1,672,000(2003년)이고, 서울시와 경북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산출한 자료가 없어 전국통계를 제시하였는데, 그 수치는 여 1,286,258원 대 남 1,957,976원을 적용하였다(2004). 이것을 남성대비 여성임금의 비율로 표시한 것이 다음 <표 5>이다.

<표 5> 남성 대비 여성임금율

(단위: %)

서울시	65.7
경북	65.7
충북	62.4

전국통계를 사용한 서울시와 경북의 경우가 충북에 비해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다.

4. 여성권한척도 산출

GEM은 정치·경제적 활동영역에서 남성에 대한 여성의 상대적 권한(relative empowerment)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앞에서 밝혔다.

성별 사회적 권한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유엔은 ‘동등배분비율’(equally distributed equivalent percentage: EDEP)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인구가중치를 적용한 평균개념’(population-weighted(1-ε) averaging)을 의미한다.

(1단계-1) EDEP를 활용한 여성 정치대표지수

여성정치대표지수는 서울시, 경북, 충북의 남녀 인구비율을 고려해서 현재 여성의회의원수가 갖는 의미를 지수화한 것이다(<표 6> 참조).

<표 6> 각 시도별 여성정치대표지수

지역	지방선거전	지방선거후
서울시	-. 지방의회 의원점유: $[0.498(94)^{-1} + 0.502(6)^{-1}]^{-1} = 11.2404$ -. 여성의원점유지수: $11.2404/50 = 0.2248$	-. 지방의회 의원점유: $[0.498(81.9)^{-1} + 0.502(18.1)^{-1}]^{-1} = 29.5723$ -. 여성의원점유지수: $29.5723/50 = 0.5914$
경북	-. 지방의회 의원점유: $[0.503(98)^{-1} + 0.497(2)^{-1}]^{-1} = 3.9427$ -. 여성의원점유지수: $3.9427/50 = 0.0789$	-. 지방의회 의원점유: $[0.503(87.9)^{-1} + 0.497(12.1)^{-1}]^{-1} = 21.3690$ -. 여성의원점유지수: $21.3690/50 = 0.3193$
충북	-. 지방의회 의원점유: $[0.502(97.2)^{-1} + 0.498(2.8)^{-1}]^{-1} = 5.4638$ -. 여성의원점유지수: $5.4638/50 = 0.1093$	-. 지방의회 의원점유: $[0.502(87.7)^{-1} + 0.498(12.3)^{-1}]^{-1} = 21.6395$ -. 여성의원점유지수: $21.6395/50 = 0.4328$

지방선거이후 여성의원의 증가로 인해 여성정치대표지수가 크게 상승하였는데, 특히 서울시의 증가폭이 크다.

(1단계-2) EDEP를 활용한 고위행정관리자, 전문기술직 대표지수

고위행정관리자, 전문기술직 대표지수도 여남간 인구비율을 고려한 각 직업들의 비율이 갖는 의미를 지수화한 것인데, 그 내용은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고위행정관리자, 전문기술직 대표지수

지역	지수
서울시	-. 고위 행정관리직점유: $[0.498(93.6)^{-1} + 0.502(6.4)^{-1}]^{-1} = 11.9392$. 여성 고위 행정관리직 점유지수: $11.9392/50 = 0.2388$ -. 전문기술직점유: $[0.498(62)^{-1} + 0.502(38)^{-1}]^{-1} = 47.0748$. 여성전문기술직 점유지수: $47.0748/50 = 0.9415$ 평균: $(0.2388 + 0.9415)/2 = 0.5901$
경북	-. 고위 행정관리직점유: $[0.503(91.3)^{-1} + 0.497(8.7)^{-1}]^{-1} = 15.9653$. 여성 고위 행정관리직 점유지수: $15.9653/50 = 0.3193$ -. 전문기술직점유: $[0.503(62)^{-1} + 0.497(38)^{-1}]^{-1} = 47.1880$. 여성전문기술직 점유지수: $47.1880/50 = 0.9438$ 평균: $(0.3193 + 0.9438)/2 = 0.6315$
충북	-. 고위 행정관리직점유: $[0.502(96.5)^{-1} + 0.498(3.5)^{-1}]^{-1} = 6.7802$. 여성 고위 행정관리직 점유지수: $6.7802/50 = 0.1356$ -. 전문기술직점유: $[0.502(55.4)^{-1} + 0.498(44.6)^{-1}]^{-1} = 49.4382$. 여성전문기술직 점유지수: $49.4382/50 = 0.9888$ 평균: $(0.1356 + 0.9888)/2 = 0.5622$

이 지수는 경북이 0.6315로서 서울시의 0.5901, 충북의 0.5622보다 높다. 이는 경북의 경우 3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때문이다.

(2단계) 여성 소득지수 계산

여성소득점유지수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한 통계는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여성소득점유지수 계산을 위한 각 연도별 통계치

(단위: %, \$)

	성별경제활동 인구비율	남성대비여성임금비율	1인당 총생산 (GRDP)
서울시	여 : 남 = 42.2 : 57.8	65.7	\$15,867
경북	여 : 남 = 44.2 : 55.8	65.7	\$18,141
충북	여 : 남 = 42 : 58	62.4	\$14,250

* 1인당 GRDP⁷⁾계산의 경우 서울시, 경북도, 충청도에 각각 문의한 2004년도 GRDP를 2004. 12. 31일 기준환율 1,144.6원으로 나눈 것임

1) 서울시 소득지수 측정

<표 8>의 수치를 이용해서 산출한 서울시 여성의 EDEP 소득지수는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서울시 여성의 소득점유지수

구 분	지수산출과정
① 평균임금대비 여성임금과 남성임금의 비율(W): 평균임금대비 여성임금비율: 평균임금대비 남성임금비율:	W=0.422(0.657) + 0.578(1) = 0.8553 -. 0.657/0.8553 = 0.7682 -. 1/0.8553 = 1.1692
② 소득점유: {[여성임금/평균임금]*여성경제활동인구비율} + [(남성임금/평균임금)*남성경제활동인구비율] = 1이 됨	-. 여성: 0.7682 * 0.422 = 0.3242 -. 남성: 1.1682 * 0.578 = 0.6758
③ 여성과 남성의 소득점유비율	-. 여성: 0.3242/ 0.422 = 0.6458 -. 남성: 0.6758/ 0.578 = 1.3571
④ 동등배분 소득지수(equally distributed income index)의 계산 (UNDP에서 지수로 사용한 1인당 국내총생산(real GDP per capita)의 최저값이 100달러이고 최고값이 40,000달러임)	-. $[0.498(1.3571)^{-1} + 0.502(0.6458)^{-1}]^{-1} = 0.8739$ -. $0.8739 * 15,867 = 13,866$ -. $(13,866 - 100) / (40,000 - 100) = 0.3952$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산출된 서울시의 여성소득지수는 0.3952이다.

2) 경북 소득지수 측정

<표 8>의 수치를 이용하여 산출한 경북 여성의 소득지수는 다음 <표 10>와 같다.

7) 지방자치제도 실시이후 각 시도들이 1인당 GDP가 아닌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 개념을 사용하였다.

<표 10> 경북 여성의 소득지수

구분	지수산출과정
① 평균임금대비 여성임금과 남성임금의 비율(W): 평균임금대비 여성임금비율: 평균임금대비 남성임금비율:	$W=0.442(0.657) + 0.558(1) = 0.8484$ - . $0.657/0.8484 = 0.7744$ - . $1/0.8484 = 1.1787$
② 소득점유: {[여성임금/평균임금]*여성경제활동인구비율} + [(남성임금/평균임금)*남성경제활동인구비율] = 1이 됨}	- . 여성: $0.7744 * 0.442 = 0.3423$ - . 남성: $1.1787 * 0.558 = 0.6577$
③ 여성과 남성의 소득점유비율	- . 여성: $0.3423/0.442 = 0.6887$ - . 남성: $0.6888/0.558 = 1.3076$
④ 동등배분 소득지수(equally distributed income index)의 계산 (UNDP에서 지수로 사용한 1인당 국내총생산(real GDP per capita)의 최저값이 100달러이고 최고값이 40,000달러임)	- . $[0.503(1.3076)^{-1} + 0.497(0.6887)^{-1}]^{-1} = 0.9039$ - . $0.9039 * 18141 = 16,397$ - . $(16,397 - 100)/(40000 - 100) = 0.4522$

이런 과정을 거쳐 산출된 경북 여성의 소득지수는 0.4522이다.

3) 충북 소득점유지수 측정

<표 8>의 수치를 이용하여 산출한 충북 여성의 소득지수는 <표 11>과 같다.

<표 11> 충북 여성의 소득지수

구분	지수산출과정
① 평균임금대비 여성임금과 남성임금의 비율(W): 평균임금대비 여성임금비율: 평균임금대비 남성임금비율:	$W=0.420(0.624) + 0.580(1) = 0.8421$ - . $0.624/0.8421 = 0.7410$ - . $1/0.8421 = 1.1875$
② 소득점유: {[여성임금/평균임금]*여성경제활동인구비율} + [(남성임금/평균임금)*남성경제활동인구비율] = 1이 됨}	- . 여성: $0.7410 * 0.420 = 0.3112$ - . 남성: $1.1875 * 0.580 = 0.6888$
③ 여성과 남성의 소득점유비율	- . 여성: $0.3112/0.420 = 0.7410$ - . 남성: $0.6888/0.580 = 1.1875$
④ 동등배분 소득지수(equally distributed income index)의 계산 (UNDP에서 지수로 사용한 1인당 국내총생산(real GDP per capita)의 최저값이 100달러이고 최고값이 40,000달러임)	- . $[0.503(1.1875)^{-1} + 0.497(0.7410)^{-1}]^{-1} = 0.9139$ - . $0.9139 * 14,250 = 14,921$ - . $(14,921 - 100)/(40000 - 100) = 0.3546$

충북의 경우는 3개 시도 중 가장 낮은 0.3546으로 산출되었다.

(3단계) GEM산출

여성권한지수는 앞에서 산출한 여성정치대표지수, 여성 고위행정·관리직과 전문기술인 지수, 그리고 소득점유지수를 합쳐서 3으로 나눈 값이다.

<표 12> 각 시도의 GEM

지역	선거전	선거후
서울시	$1/3*(0.2248 + 0.5901 + 0.3952) = 0.4034$	$1/3*(0.5914 + 0.5901 + 0.3952) = 0.5256$
경북	$1/3*(0.0789 + 0.6315 + 0.4522) = 0.3875$	$1/3*(0.4274 + 0.6315 + 0.4522) = 0.5037$
충북	$1/3*(0.1093 + 0.5622 + 0.3546) = 0.3420$	$1/3*(0.4328 + 0.5622 + 0.3546) = 0.4499$

<표 12>에서 보듯이 3개 시도 중에서는 5.31지방선거 전후 모두 서울시, 경북, 충북 순으로 여성권한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5.31지방선거이후 서울시의 여성의원비율이 경북이나 충북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였기 때문이다. 경제지수면에 있어서는 경북이 서울시나 충북에 비해 높다. 2004년에 UNDP에서 산출한 한국의 GEM은 0.377로서 조사대상국 중 68위였는데(undp.org), 5.31이전의 경우 이와 비교해 보면 서울시와 경북이 우리나라 전체수치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2004년도의 GEM 상위순위인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의 경우 각각 0.908, 0.854, 0.847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아시아국가들 중에서는 일본이 가장 높는데 일본의 경우 2004년도 GEM순위는 조사대상국들 중 38위이고 척도의 수치는 0.531이다(undp.org).

IV. 정책적 함의

지방선거결과 여성의원들이 증가함에 따라 각 지역별 여성권한척도의 상승이 괄목할만하다. 특히 서울시의 높은 GEM은 여성의원비율 때문이다.

경북의 경우는 여성정치참여지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것이 GEM을 끌어올리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이다.

충북의 경우는 여성정치참여지수가 경북에 비해서는 높지만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인 관점

에서 높다고 볼 수 없고, 고위여성 행정관리직 및 전문기술직, 소득점유지수 등 모든 면에서 비교대상인 서울시나 경북에 비해 낮다.

여성권한척도의 산출에서 볼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첫째, 5.31지방선거 이후 여성 정치참여율이 이전에 비해 상당히 신장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경북과 충북의 낮은 GEM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여성고위행정관리직 비율과 여성소득지수에도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고위행정관리직의 수치를 이끄는 것은 민간부문 임원급 여성비율이고, 공무원의 경우는 서울시 3급이상 여성공무원이 3명, 경북이 1명, 충북은 0명으로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

둘째, 5.31 지방선거이후의 수치를 보면 여성의 경제대표성은 3개 시도 모두 다른 지수에 비해 상당히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남성 대비 여성임금율이 낮은 것과 직접 연관이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여성 고위행정·관리직 임명에 대한 압력이 중앙보다 약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대응도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듯하다. 이는 2003년 기준으로 충북(2.60%)을 비롯한 강원(2.70%), 충남(2.70%), 전남(2.20%), 경북(2.70%), 경남(2.40%), 제주(2.10%) 등(김재기, 2004) 대부분의 도가 2%선에 머물고 있다가 2004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 전국평균이 5.9%까지 향상되었지만(행정자치백서: 2005: 389)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중앙과 지방 모두 여성고위행정직의 비율이 이렇게 저조한 것으로 볼 때 여성관리직 임용 확대 5개년 계획의 연장이 필요해 보인다. 일명 여성관리직 임용목표제로 지칭되는 이 제도는 5급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10%에 이르기까지 연도별 목표비율을 설정해 놓고 있는데,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목표달성이 어려워 보인다.

넷째, 여성소득점유지수도 마찬가지이다. 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이 62-65%정도로서 매우 낮은 형편이며 여성경제활동참가비율도 남성에 비해 낮다.

이러한 남성대비 여성힘의 약현상은 우리나라 뿐아니라 타 국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1995년도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에서는 성불균형을 줄일 수 있는 5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국상황에서 GEM을 향상시키는데 적절한 사항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자세한 것은 Ok-Soon Lee, 2004).

첫째, 법적 차별을 없앤다. 공사영역에서 성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틀의 완비가 중요하다. 성평등을 방해하는 제도적 장애요소들도 찾아내어 포괄적 정책개혁과 강력한 적극적 조치를 통해 제거해야 한다.

둘째, 사회 및 제도적 규범변화를 촉진한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성역할에 근거한 행태적 및 제도적 규범이 공공영역에 대한 여성참여를 어렵게 한다. 가정에서의 여성과 남성간

의 좀 더 평등한 책임배분이야말로 정치 및 경제영역에 있어서 여성참여기회를 보장하는 데 근본적인 것이다.

셋째, UN여성지위위원회에서 권고하는 핵심의사결정지위 점유율 30%를 제도화한다.

넷째, 여성교육에 대한 투자 등 여성기회향상에 필요한 주요 프로그램에 역점을 둔다.

다섯째, 여성의 경제적 및 정치적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에 목표를 둔다.

GEM에 대해 유엔디피에서는 이 척도가 보편적인 처방적 지표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undp.org: 1995; 2004). 즉 여성권한척도의 결과는 경제적·정치적 참여의 결과일 수도 있고, 여성의 진입을 막는 구조적 장벽때문일 수도 있고, 또 사회내에서 남여가 각자 원하는 역할을 선택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UNDP, 1995: 83). 다시 말해서 남여간에 선택의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려는 것이 목표이고, 정치적·경제적 영역에서 특정한 비율을 달성하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다. 때문에 UN은 각 국가들의 여성비율을 근거로 한 지표를 근거로 순위만 정할 뿐 그것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UNDP는 GEM이 가지는 한계도 지적하고 있는데, 예컨대 성평등이나 성권한의 개념이 다양한 여러 가지 통계지표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지표로 나타내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심오한 개념이라는 것이다(<http://hdr.undp.org>: 2006. 8. 5). 때문에 GEM은 다양한 측면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로서 여성의 비시장적 활동에 대한 참여와 국가내 정치 및 행정의 하위수준에서의 여성참여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성참여 및 목표달성을 견지하는 하나의 유용한 도구로서는 쓰임새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UNDP가 여성권한척도의 순위만 정하고 평가를 하지 않고 또 처방적 지표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충분히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또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V. 맺는말

5.31지방선거이후 지방의회에 진출한 여성의원들이 증가하여 각 시도의 GEM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였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부족한 부문이 많다.

매년 유엔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여성들은 경제발전에 비해 사회적 면에서의 권한 및 지위는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부진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여성정책을 기획하고 여성의 권익증진 등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

해 다양한 활동을 하여왔다.

민주주의의 발전이나 참다운 참여가 여성과 남성간의 평등한 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보았을 때 여성의 권한향상은 시급한 정책과제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교육, 영양, 소득 등 인간개발 지표면에서는 여성이 높은 수준을 보이는 반면 이것인 GEM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에서 서울시와 경북, 충북 여성의 사회적 권한이 과연 어느 정도 인지를 측정하였다. 낮은 GEM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5.31선거이전에는 여성의 정치참여지수이고, 선거이후에는 소득지수이다. 유일하게 국제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지표는 전문기술직 비율인데(스웨덴 50%, 노르웨이 49%, 오스트레일리아 55%, 일본 46%) 여기에는 보건의료전문가와 교육전문가 문화, 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 등 상대적으로 여성전문가 비율이 높은 부문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지방의 경우 여성의 힘이 약하고 힘이 약하기 때문에 강력한 정책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정책적 대응이 약하다 보니 지방정부의 정책적 반응이 소극적으로 되는 약한 여성 권한향상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GEM을 높이기 위한 여성단체, 학계, 정계 등이 힘을 합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속희. (2000). 「충북 여성의 사회적 권한 증대방안」. 박재창편, 정부와 여성참여. 법문사: 293-316
- 김미경. (1999). 「차별적 여성고용의 위기와 정부역할의 모색」. 한국정책학보. 8(1): 273-292.
- 김재기. (2004). 관리직 여성공무원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노동부. (1997). 「1997노동백서」.
- 노동부. (1999). 「영세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보고서」.
- 노동부. (1999).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 박연호. (1998). 「현대인간관계론-조직행동과 대인관계-」. 서울: 박영사.
- 박우순. (1996). 「현대조직론」. 서울: 법문사.
- 여성부. (2004). 「여성인적자원개발 혁신방안연구」.
- 여성특별위원회. (1999). 「1999여성백서」.
- 윤우근. (1997). 「행정행태론」. 서울: 법문사.
- 이창원, 최창현. (1997). 「새조직론」. 서울: 대영문화사.
- 전국경제인연합회. (1997). 「한국경제연감」.
- 조선일보. 1999. 1. 2; 1999. 7. 8; 1999. 9. 17.
- 중앙일보. 2000. 1. 13.
- 충청북도. (1997). 제37회 충북통계연보.
- 충청북도. (1999). 1999충북여성통계.
- 충청북도. (2005). 2005충북여성통계.
- 충청북도 법무통계담당관실. (1999). 1999년 주민등록인구통계
- 통계청. (1997). 한국통계연감.
- 통계청. (1998). 국제통계연감 1998.
- 통계청. (1999). 경제활동인구연보.
- 한국일보. 2005. 8. 11
- 행정자치부. (1999). 행정자치부통계연보.
- 행정자치부. (2000). 행정자치부통계연보.
- 행정자치부. (2003). 여성과 공직 2002.
- 행정자치부. (2005). 행정자치부통계연보.
- 행정자치부. (2005). 행정자치백서.

- King, Cheryl Simrell. (1995). Sex-Role Identity and Decision Styles: How Gender helps explains the Paucity of women at the Top. in Georgia Duerst-Lahti & Rita Mae Kelly(eds.). *Gender Power, Leadership, and Governance*.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Duerst-Lahti, Georgia & Rita Mae Kelly. (1995). *On Governance, Leadership, and Gender*. in Georgia Duerst-Lahti & Rita Mae Kelly(eds.).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Guy, Mary E. (1994). Organizational Archotecture, Gender and Women's Careers. *Review of Public Personal Administration*. 14(2): 79-90.
- Karl, Marilee. (1995). *Women and Empowerment -Participation and Decision Making-*. London: Zed Book LTD.
- Naff, Katherine C. (1994). Through Glass Ceiling: Prospects the the Advancement of Women in the Federal Civil Servi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4(6): 507-514
- Ok-soon, Lee. (2004). Query: Republic of Korea-Policy options to improve the GEM Ranking. <http://hdr.undp.org>
- Randall, Vicky. (1987). *Women and Politics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Tamerius, Karin L. (1995). Sex, Gender, and Leadership in the Representation of Women. in Georgia Duerst-Lahti & Rita Mae Kelly(eds.). *Gender Power, Leadership, and Governance*.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The Corporate state: A Women's CEO and Senior Management Summit. *The CPA Journal*. 1998. november: 9.
- UN. (1994). *Humen Development Report 1993*.
- UNDP. (1996). *Humen Development Report 1995*.
- UNDP. (1997). *Humen Development Report 1996*.
- UNDP. (2005). *Humen Development Report 2004*.
- www.undp.org/unifem/gender.htm(2006. 8. 5)
- www.undp.org/hdro(2006. 8. 5)
- www.undp.org/hdro/anatools.htm(2006. 8. 5)
- www.mogef.go.kr(2006. 6. 4)